

## ■ 일본 정부, 2035년 및 204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논의

- 일본 정부는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대한 논의를 추진 중이며, 2025년 2월에 UN에 제출할 계획임.<sup>1)</sup>
  - 현재 일본 정부는 2030년까지 2013년 대비 46% 감축하겠다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시하고 있음. 경제산업성과 환경성은 현재 감축목표 및 2050년 탄소중립 실현 목표를 고려하여 새로운 감축목표로서 2035년까지 2013년 대비 60% 감축, 2040년까지 2013년 대비 73% 감축하는 안을 제시함.
  - 이는 현재 온실가스 감축 속도를 유지하는 수준이며, 기업 등을 대상으로 탈탄소 대응을 촉구할 것임. 한편, 감축목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으며, 탈탄소 기술이 보급되어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 일본의 2022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 대비 2.3% 감소한 10억 8,500만 톤이며 이는 2013년 대비 22.9% 감소한 수준임.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해 2050년 탄소중립 목표가 순조롭게 실현되고 있다고 평가함.
    - 경제산업성과 환경성은 성급하게 온실가스 배출을 서두를 경우, 경제에 대한 부담이 확대되는 것을 고려하여 배출 감축목표를 신중히 강화할 계획임.
  - 일본 국립환경연구소(National Institute for Environmental Studies, NIES)는 복수의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및 비용 등을 추산함.
    - CO<sub>2</sub> 회수 등 탈탄소 기술이 2030년 이후 순조롭게 보급되고 재생에너지 및 수소·암모니아 등 탈탄소연료가 확대되면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음.
    - 한편, 탈탄소 기술이 충분히 보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입을 서두르면 에너지조달비용 등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하였음. 현행 감축 수준을 유지한 경우에는 2050년까지 탈탄소 기술 도입에 드는 총 비용을 비교적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 일본 정부는 전원별 발전비용 및 2040년 에너지 전원구성을 포함한 제7차 에너지기본계획(이하 '에기본')을 2025년 2월에 각의결정할 방침이며, 연내에 GX2040비전과 지구온난화대책계획의 초안을 제시할 계획임.<sup>2)</sup>
  - 에기본을 통해 에너지 전원구성이 결정되면 에너지부문 CO<sub>2</sub> 배출량을 산출할 수 있음. 비에너지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 대책을 고려하여 지구온난화대책계획을 수립할 것임.
  - 산업정책 및 탄소가격제(carbon pricing) 정책을 담은 GX2040비전 수립 작업도 추진할 것임.

1) NHK, 2024.11.25., 日本經濟新聞, 2024.11.25., TBS NEWS, 2024.11.25., 産経新聞, 2024.11.25.

2) 電氣新聞, 2024.11.25.